홍세빈

Developer



Career 신입 E-mail hongsb5837@gmail.com

Brith 1999.11.10 GitHub

Phone 010-9918-9297 Portfolio https://hongsebin.github.io/#

핵심 역량

- Python으로 기본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Java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와 메소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jango와 JavaScript를 사용한 Frontend 중심의 웹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 HTML과 CSS를 이용한 웹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Git을 활용한 소스코드 버전 관리 및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Skill Set Language Python Java JavaScript R HTML CSS

Library & Framework jQuery Spring Boot Django

Database MySQL Oracle

Development Tool VS Code Eclipse STS

ETC Git Github

학력 및 교육 2018.03 ~ 2022.02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졸업

2020.03 ~ 2022.02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졸업 (복수전공)

2022.08 ~ 2023.03 소프트 엔지니어 소사이어티 빅데이터 융합서비스엔지니어

양성과정 수료

자격증 2020.01.17 GTQ 포토샵 1급

2023.02.25 정보처리기사 필기 합격

어학 능력 2022.07.24 TOEIC 740점

자기소개서

디자이너에서 개발자로

제가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적 취미는 스티커 수집입니다. 좋아하는 스티커를 따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림 그리기라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크면서는 조립하고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껴 미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내기도 하는 패션디자인과에 진학했고 첫 2 년을 보냈습니다.

2019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대학교 3, 4학년을 모두 인터넷 강의로만 수강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 주변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의 디지털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IT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었고, 뭐든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만이 '만들기'라고 생각했던 제가 만질수는 없지만 컴퓨터로 코드를 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과 코딩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도구에는 차이가 있지만 행위 자체에는 유사성이 많습니다. 저는 코드를 마냥 작성하기만 하는 개발자가 아닌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꼼꼼하고 끈기있게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꼼꼼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최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원들 대다수가 처음 하는 프로젝트라서 초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PM과 디자이너 없이 개발자 4명이서 진행한 프로젝트라서 세부 계획을 세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표, 필요한 기능, 만들어야 할 템플릿 수 등을 정리해서 조원들 앞에서 PPT 화면을 띄우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개발에 들어가면서 초반에 상세 계획을 세워 둔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계획한 것을 기반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했더니 학원 내에서 가장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이 고민일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의견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논쟁을 피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배려심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지만 생각을 참아내다 보니 스스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극복해 보고자 교내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멘토링은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했기에 이 활동을 통해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며 내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도움을 주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던 경험입니다.

도전과 성취

대학 시절 교내 방송국에서 기술부로 활동했습니다. 학우들을 위한 학교 뉴스, 방송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만들며 학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을 익혔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으로 영상 편집에 필요한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오디션 등의 프로그램을 접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방송이 캠퍼스 곳곳의 스피커를 통해 나올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과 전공수업을 수강하며 MAYA, QBASE, CAD 프로그램에도 도전했습니다. "도전은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전을 통해 하나씩 성취해 나갈 때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신뢰를 주는 개발자

회사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 능력은 물론 평소 생활 태도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행동으로 얻어집니다. 프로그램 공부를 시작하고 저는 매일 가장 먼저 학원에 도착해 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함과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능력을 발전시켜 제가 가진 가치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여보야의 "빛과 같이 달려가자"라는 사훈처럼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도모하는 활발한 인재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